



# 영원한 승리의 가치 - 《E. C.》

온 나라가 당시 제시한 새로운 철학으로 삶을 관찰하기 위한 루프으로 세차게 물어버리고 있는 적통적인 시기에서 《E. C.》를 살피기념일을 맞게 되는 우리 인민의 감회는 류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10대의 시절에 혁명의 전위적인 태도에 국주의 동맹을 결성하면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혁명의 불멸의 업적을 다스리며 뜻깊게 물어보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혁명업의 승리적 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대명이다!』

태도에 국주의 동맹,

조선혁명의 뒷이 오른 역사의 첫 기슭에서 추억의 노를 써어가는 우리의 눈앞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거예의 담원을 한풀에 암으시고 새 행의 혁명조직을 내오시기 위해 뜻을 같이 할 열혈청년들을 한사랑한 사람 뿐아서 우신에 잊을 수 없는 나날이 어려운다.

화성의 속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임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을 조직 동원하여 일본제국주의를 태도하고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무엇보다도 열혈청년들로 새 행의 전위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고 보시였다.

생전에 늘 동지를 잘 사귀고 동지를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신 김형직 선생님의 승고한 편지를 살피면서 새기고 우리 수령님께서는 끊임없이 혁명통지를 키우시였다.

혁명은 동지를 얻고 동지들을 하거나로 결속하여 조직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직은 혁명을 낳는 산파이며 혁명의 생명이다. 혁

명의 이근  
본리처를 누  
구보다 먼저  
파악하고 혁  
명 실천에  
구현하신 분  
이 우러  
수령님 이시  
였다.



조선혁명의 참다운 길, 자주적 발전의 길이 탐구되고 혁신 역량이 마련되자 우리 혁명을 떠나고 혁명의 전위조직을 결성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주제 15 (9.26)년 9월 말 혁성의 속의 청년 학생들을 취임하강 범의 모임장 소로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직의 원칙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나라를 해방하고 근로민중이 잘사는 세상을 세우자면 멀고도 먼 날길을 개척해야 한다. 우리가 대모를 놓이고 환강하게 협력을 벌여나간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조직을 네온 다음 대중을 그 두리에 묶어세우고 각 성시켜 그들의 힘으로써 나라를 해방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 후 조직을 내오기 위한 혁심성원들의 예비 회의를 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 경험, 활동규범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우리는 반일투쟁의 역사적 고문에 비추어 상충의 몇몇 사람에 의해서

주제 15 (1926)년 10월 1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창걸, 김리갑, 리제우, 김원우, 박군원을 비롯한 혁심성원들과 함께 태도제 국주의 동맹결성모임을 소집하였다.

『E. C.』가 결성된 장소는 연락도 없는 좌전의 작은 집. 당시 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한 온돌방이였다.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제국주의를 태도하자』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면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메아리쳐온다.

루친 한 번 채 차 주제 텁장이 세차게 백박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

가 아니라 대중운동으로, 그 어떤 외부세력에 의존해서는 아닙니다.

우리의 피를 절개해 하였다.

참으로 영원토록 전해갈 역사의 날 이었다.

『E. C.』의 결성,

실로 그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때로부터 조선공산주의 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사단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조와 결별되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명도 아래 불과의 위력을 힘 있게 떨쳤다.

일찌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시기에 우리 당의 역사

는 평온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나긴 세월 사대와 굽종을 속여

그대로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

리 민족, 일제의 군화발길에 무참히

고는 회의에 참가한 열혈청년들의 심장의 피를 절개해 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밀에 혁명을 승리의 원길로 향하도록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명도 아래 불과의 위력을 힘 있게

그렇다.

『E. C.』가 주께 든 혁명의 불은

기적 영원한 혁명승리의 가치로 억세

세계를 품어위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 따라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글 본사기자 전 광남

사진 본사기자 최 충성

지밥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조국이 아니었는가. 그들이 조선혁명의 역사가 전승되는 것을 다시금 심장으로 확신하였다.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역사가 중명한 이 전리는 또 한 분의 원수위인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전진으로 높이 모시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총중노도에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삶장 속에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더욱 역세여지고 있다.

우리의 귀천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끌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현대대계의 전략이 있고 중국적 승리가 있다는데 대하여 열설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성이 쟁쟁히 울려온다.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짚부시며 사회주의 수호전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뜻을 밟아주시며 주체의 가치를 높이 주께 들고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지방에서도 막바로 나아가는 현명한 명도가 인마운 고귀한 결실이다.

온갖 역사의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 국가를 일깨워 세웠다.

『E. C.』에 역사적 부리를 끈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밀에 혁명을 승리의 원길로 향하도록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명도 아래 불과의 위력을 힘 있게

그렇다.

『E. C.』가 주께 든 혁명의 불은 기적 영원한 혁명승리의 가치로 억세세 물어위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 따라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글 본사기자 전 광남

사진 본사기자 최 충성

람이 통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조선독립의 큰 위업에 뜻을 같이하고 서로 끌고 이끌면서 그 길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동지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 말씀에 그는 눈물을 흘려며 위대한 수령님의 손을 더 으스거지게 물어뜯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위대한 수령님의 전정한 동지가 될 마음속결의를 굽게 가더니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감회깊이 주 억 하시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자본가들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별 재미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동지를 모으는 재미가 최상의 라이브로 최미였다. 동지 한명을 얻을 때의 희열을 어찌 환금덩이 하나를 얻을 때의 기쁨에 비길수 있겠는가. 통지를 얻기 위한 한의 투쟁은 이제까지 국에서 막바지로 펼쳐졌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직까지 부모들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손을 험난한 통로에서 받아보았다 고 목에 말하였다.

그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원치피에 정찰에 차운 그에게 그는 수령님

# 당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일심단결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여나가자

## 당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반들도록

연 산 군 당 위 원 회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트. 드』가 결정된 때로부터 92돐이 된다.

각급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결의 중심, 명도의 중심으로 높이 밟아온 모시고 조선혁명을 개척한 『트. 드』의 혁명투사들처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경사용위정신을 만장 약한 사상의 강자들로 키우는데 당사업의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성과를 두드려

### 더 높이

지난 6월말 이곳 군에서는 도안의 교양사업부문 일군들이 모인 가운데 위대성교양과 관련한 보여주기 사업에 전력되었다.

모두가 감동을 금치 못했다. 당시 유일사장교양의 거점단계를 통하니 멀리 진 김 일성 - 김정일주의 연구실, 그를 통하여 신도있게 진행되는 당문현전집 침투와 실속있는 학습당회, 학습사업과의 위대성교양, 봉사를 통해 주제를 높출 줄었다.

때울 점이 많았고 하면서 사업성과를 축하주는 일군들이 적지 않았다.

참신한 위대성교양을 위해 그동안 둘러 노력이 큰것으로 하여 군당위원회 일군들도 자부심

있는 시, 군당조직들 가운데는 연산군당위원회도 있다.

위 대 한 명 도 자 김 정 일 동 치 께 서 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우 리 의 일 심 단 결 은 수령경사용위정신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률일 단결입니다.』

그러면 이곳 군당위원회 사업에서 특징적인 점은 무엇인가.

### 정 한 목 표

을 가질만 하였다.

그러나 군당책임일군들은 조금도 탐색을 높출 줄었다.

김정일 군당위원장은 보여주기 사업 이후 부위원장과 전진한 혁의를 진행하면서 위대성교양

을 친선하게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루 편리하게 풀어세우기 위한 작전을 더욱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이룩된 성과에 만족하여 한층 더 높아져 하면서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신실파를 더듬더니 조이거나 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성을 여러 계기들에 깊이 인식시키는 것과 함께 군사통

록 하였다.

지난 10월 12일에 진행된 학습강사의 날에 군당부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 도록 해설을 짚도록 해주면서 학습강사들에게 태도제국주의 동행을 결성하신 수령님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었다. 모든 강사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트. 드』

과 같은

우리 당의 부리이며 단결의 전형이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치로 되는데 대하여 강조해 주도록 빠르히 하여 위대성교양을 강조해 놓아 보인 그나마

공지와 지부침을 가슴깊이 간직

하였으며 최고령도자동지의 두

미래 몸에 통제 강제경찰대전제군

을 다그쳐나갈 열의에 충만되게 되었다. 그것이 군사업에서의 성과로 이어졌다.

###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군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차례로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친선하게 밭을 돌아나가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성을 여러 계기들에 깊이 인식시키는 것과 함께 군사통

록 하였다.

사업소에서 베스들의 유행파정에 널리 해설선전하도록 함으로써 군을 오가는 여행자를 마

음속에도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철학적인 신뢰심이 끌어번지

게 하였다.

보여주기사업 이후 보다 공세

적으로 벌어진 위대성교양사업의

실효는 커졌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뜻 같으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혁명의 진주로 높이 모신 그나마

공지와 지부침을 가슴깊이 간직

하였다. 시야기 『월세위인들의 손길

이래 빛나는 땅』을 비롯한 종목

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기동에 술

선동대 공연은 농업근로자들에게

발표되어 우리 당을 알았던 것을

갖고 전시회는 험동농장들을 순회

하면서 별개로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군에

나오는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의 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전시회는 험동농장들의

승리와 혁명전적지를

갖고 전시회는 험동농장들의

# 혁명적 량심과 의리로 당을 밟드는 참된 일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계선에서 혁명적 전환기이 일어나고 있는 객동적인 현실은 인민경제의 한계부문, 한계 단위를 당과 국가앞에 책임진 일군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발하고 또 분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행운도 자김 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다.

『수령이 배불어주는 사람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서 최고의 도덕이고 의리입니다.』

삼지연군 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여 당에 커다란 기쁨을 드린 펴승호당위원장의 사업은 평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순실했던 량심과 의리로 밟드는 길에 전시의 창된 삶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 주고 있다.

## 혁명의 성지에 바쳐가는 뜨거운 마음

리승호당위원장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순결한 향심과 의지를 지니고 삼지연군건설에 깨끗한 충정을 바쳐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리승호당위원장은 삼지연군건설장을 찾았다. 올해에는 들어서면서도 어려워져나온 건설장을 찾는 그였지만 날마다 변모되는 삼지연군의 모습은 그의 가슴을 걱정으로 끌어 하였다. 더 우기 전설에 험난한 일군들도 일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것을 실무적 문제로 대하지 않았다.

언제인가 위진회 앞에는 삼지연군건설에 필요한 흥관생산비를 지체없이 만들어 보였던 대한 무거운 책임이 나섰다. 그는 그것을 당의 크나큰 신임과 믿음으로 새겨가며 설비를 제기일에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하루에도 수차례나 현장에 내려가며 험난한 일군들을 찾고는 것으로 하여 그의 기쁨은 이틀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순간이었다.

삼지연군에서는 그는 오래도록 밟았을 수 없었다.

한것은 역시 들어온 많은 물통들이 불편기재의 부족으로 건설장에 계약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마음은 무기웠다.

(물통보장기자 삼지연군건설을 다그치는 길이다. 하다면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

그는 삼지연군건설에 천으로 품전기재를 마련하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봄으로 알아안았다. 그후 리승호당위원장의 제의에 따라 원로회에서는 성능이 제일 좋은 15t급 기중기차를 푸라에비마리와 무주동까지 충분히 갖추어 삼지연

보내여 생산이 정상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기술진술도 주고 기술기술수준도 높여주어 흥관생산을 자료로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의 속생각이었다.

수도건설사, 그 말이 얼마나

여울이 있던지 시공에서 사소한 반복시공이 나타날 때마다 당책임인 군의 당부가 번역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200여종에 1만 8000여점의 후방물자였다.

지난 2월 어느 날이었다. 이날 리승호당위원장은 단위들에

서 유통과 흥관평단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기능이 높은 종업원들이 있

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종업원

들도 일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것을 실무적 문제로 대하지 않았다.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진

심으로 발달하는 일군들의 사상

과 유훈과 당정책을 훤치의 드

릴도 없이, 한길을의 양보도 없

이 험악한 관찰을 걸사의 기

등이다.

몇몇 경양지의 어느 한 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으로 일하

면 그는 당의 높은 신임에 의해

수도건설위원회 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걱정이 많았다. 실무가

부족하고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을 수도건설부문의 당책임

임원으로 내세워준 당의 신임

이 너무도 커서였다. 하지만 혁

명가의 참된 인생은 수령의

믿을 수밖에 있고 수령의 구상을

현실로 풀어보는데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그 믿음을 보답

하기 위해 자신을 초조처럼 께

그리 불렀다.

당시 위원회의 기본건설설계

지도부에서 일군들은 풍성-서

포-역로킬길주변에 1 000

여대미의 살림집을 끌어내고

건설장을 확장하고 통일로

수도건설위원회 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삼지연군건설에 천으로

품전기재를 마련하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봄으로 알아

안았다. 그후 리승호당위원장

의 제의에 따라 원로회에서는

성능이 제일 좋은 15t급 기중

기차를 푸라에비마리와 무주

동까지 충분히 갖추어 삼지연

농력 있는 기술자들을 힘께

보내여 생산이 정상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기술진술도 주고 기술기술수준도 높여주어 흥관생산을 자료로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의 속생각이었다.

수도건설사, 그 말이 얼마나 여울이 있던지 시공에서 사소한 반복시공이 나타날 때마다 당책임인 군의 당부가 번역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200여종에 1만 8000여점의 후방물자였다.

우리는 여기에 그가 삼지연군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바친 뜨거운 흔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는 멀지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에서 올해

당위원회를 결사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알맞았는가. 그는 이를 실무적 문제로 대하지 않았다.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진심으로 발달하는 일군들의 사상과 유훈과 당정책을 훤치의 드릴도 없이, 한길을의 양보도 없이 철저한 관찰을 걸사의 기

등이다.

몇몇 경양지의 어느 한 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으로 일하

면 그는 당의 높은 신임에 의해

수도건설위원회 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걱정이 많았다. 실무가

부족하고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을 수도건설부문의 당책임

임원으로 내세워준 당의 신임

이 너무도 커서였다. 하지만 혁

명가의 참된 인생은 수령의

믿을 수밖에 있고 수령의 구상을

현실로 풀어보는데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그 믿음을 보답

하기 위해 자신을 초조처럼 께

그리 불렀다.

당시 위원회의 기본건설설계

지도부에서 일군들은 풍성-서

포-역로킬길주변에 1 000

여대미의 살림집을 끌어내고

건설장을 확장하고 통일로

수도건설위원회 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삼지연군건설에 천으로

품전기재를 마련하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봄으로 알아

안았다. 그후 리승호당위원장

의 제의에 따라 원로회에서는

성능이 제일 좋은 15t급 기중

기차를 푸라에비마리와 무주

동까지 충분히 갖추어 삼지연

농력 있는 기술자들을 힘께

보내여 생산이 정상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기술진술도 주고

기술기술수준도 높여주어 흥관

생산을 자료로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의 속생각이었다.

그들은 단체로 험악한 관찰을

걸사의 기

등이다.

수도건설위원회 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단체로 험악한 관찰을

걸사의 기

등이다.

수도건설위원회 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단체로 험악한 관찰을

걸사의 기

등이다.

수도건설위원회 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단체로 험악한 관찰을

걸사의 기

등이다.

수도건설위원회 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단체로 험악한 관찰을

걸사의 기

등이다.

수도건설위원회 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단체로 험악한 관찰을

걸사의 기

등이다.

수도건설위원회 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단체로 험악한 관찰을

걸사의 기

등이다.

수도건설위원회 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단체로 험악한 관찰을

걸사의 기

등이다.

수도건설위원회 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단체로 험악한 관찰을

걸사의 기

등이다.

수도건설위원회 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단체로 험악한 관찰을

걸사의 기

등이다.

수도건설위원회 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단체로 험악한 관찰을

걸사의 기

등이다.</



## 절세위인의 애국현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

지금 온 거리는 조국통일위업의 전도를  
마련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차  
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루하기 위한 힘찬  
두쟁을 벌리고 있다.

해내외의 우리 거예에게 조국통일과 민  
족번영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봉사를  
안겨주고 있는 북남관계발전의 경이적인  
현실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의 헌명한 령도와 애국현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통지는 비빔한  
예지와 달릴 한 령도역, 열회같은 민족에  
와 최고령도자통일의지를 지니고 차운 통  
일위업의 성취를 위하여 불변 불渝의  
로고를 바쳐 가시는 민족의 태양이 시며  
조국통일의 구현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민족의 분憾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는 안된다!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  
일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투기할  
핵사적 사변을 펼이어 아세기며 흘러온  
작동의 남과 남을 물어버려 수습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나고 계시는 송고한 민족에  
와 드립없는 통일에 국의 의지가 끄겁게  
되게졌다.

지금도 우리의 귀천에 들려오는듯  
싶다.

주제 101(2012)년 3월 대결  
의 최전방이며 민족분렬의 상징인 판문  
점을 찾으시며 조국통일에 대한 철석의  
의지를 천명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이.

그에 이어 어버이수령님 팔방 100돐  
단파 괴각적 조치들을 헌수 취해주시었다.

이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거예의 가  
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  
파악관, 불같은 열정을 살여주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관  
듯이 북남관계를 활짝 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들 써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솔직한 모습에서 우  
리가 칠갑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원생의  
뜻이었고 민족의 사활攸要인 조국통일  
을 반드시 이룩하는 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통지의 확고부동한 결심  
이고 의지이며 북남의 신념이라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통지께서는  
그 의지, 그 신념을 안으시고 조국통일의  
핵사적 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  
의 두성을 정령적으로 명도하고 계신다.

들이켜보면 지난해까지 하여도 이  
땅에는 얼마나 침에 한 나날이 흘렀던가.

내가족과 전쟁의 죄구단으로 치닫는 조선  
반도정세를 온 세계가 기다란 우려속에

지켜보았다.

열렬한 국에 국족의 뜻과 꽝고한 통일  
의지가 지나신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  
아니시었다면 회복과 단합, 평화으로 향  
한 오늘의 북남관계의 거칠같은 현실에  
대해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흘려보는 첫이처럼 불신과 적대의 얼음장  
을 깨뜨리며 청색위인의 뜨거운 애국의  
호소가 삼천리 강토에 울려펴졌다. 드러  
운 동포와 함께 넓은 도량을 지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3차 북남

수뇌상봉과 회담이 있은 후 한달만인  
지난 5월 26일 판문점에서 제4차

시고 이어 세인을 경단시키는 통이 큰 결  
단파 괴각적 조치들을 헌수 취해주시었다.

이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거예의 가  
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  
파악관, 불같은 열정을 살여주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관  
듯이 북남관계를 활짝 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들 써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솔직한 모습에서 우  
리가 칠갑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원생의  
뜻이었고 민족의 사활攸要인 조국통일  
을 반드시 이룩하는 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통지의 확고부동한 결심  
이고 의지이며 북남의 신념이라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통지께서는  
그 의지, 그 신념을 안으시고 조국통일의  
핵사적 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  
의 두성을 정령적으로 명도하고 계신다.

들이켜보면 지난해까지 하여도 이  
땅에는 얼마나 침에 한 나날이 흘렀던가.

내가족과 전쟁의 죄구단으로 치닫는 조선  
반도정세를 온 세계가 기다란 우려속에

지켜보았다.

열렬한 국에 국족의 뜻과 꽝고한 통일  
의지가 지나신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  
아니시었다면 회복과 단합, 평화으로 향  
한 오늘의 북남관계의 거칠같은 현실에  
대해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흘려보는 첫이처럼 불신과 적대의 얼음장  
을 깨뜨리며 청색위인의 뜨거운 애국의  
호소가 삼천리 강토에 울려펴졌다. 드러  
운 동포와 함께 넓은 도량을 지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3차 북남

수뇌상봉과 회담이 있은 후 한달만인  
지난 5월 26일 판문점에서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절격적으로 단행  
하시고 4·27 선언을 신속히 펴령해나가  
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  
대한 합의를 이룩하심으로써 북남관계발  
전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주동하시었다.

지금도 내외가 격차하고 온 세계를 흥  
분과 갑작으로 끌어 하고 있는 제5차 북남  
수뇌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통지의 확고부  
동한 자주통일의지와 풍자, 긴 결단, 뜨거운  
민족애에 의해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에 대한 원대  
한 구상을 안으시고 남북관계의 국적인  
사변들을 편이 편하게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남조선 각계는 《간진  
세월의 본령의 아름을 희래의 순길로  
나서주시며 평화와 번영, 통일의 풍기를  
펼치시는 태양파도 같으신분》, 《남북거  
리를 하나로 단합시켜 8천만민족의 힘  
으로 세계최고의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신  
정신을 출한 정치지도력》, 《우리 거예에게  
감각과 행복, 영광을 안겨 주실 회세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여 감사의 인사를  
삼아 드리고있다.

9월의 민족사적 사변을 통하여 해내외  
의 우리 거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찬란한 태양의 빛발로 민족의 앞길을 밝히  
여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  
일위업을 펼치고 있는 천민이 한결같  
은 지향과 요구를 만족하는 경관이다.

이날 몸은 판문점본부를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주  
시고 해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위인적 품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거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빛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